

올해 도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선 1%

도교육청, 위반 땐 지원금 회수·원아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 동결시 지원금

올해 유치원비 인상률은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해 인상하는 유치원은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사업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정책'을 도내 전체 사업유치원에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유치원비에 대한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돼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한다.

올해의 경우 직전 3개년(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1%(통계청 자료) 이내에서 원비 인상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특히 전년 대비 납입금 총액을 동결한 유치원에는 동결지원금을 지원하고, 납입금 인상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1%까지 인상을 허용하되 동결지원금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원비 총액이 지난해 도내 사업유치원 평균 납입금인 43만2,000원 미만인 유치원은 1% 내에서 인상해도 동결로 간주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동결지원금은 납입금 동결에 따른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 최고진 세종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유치원 손실금 보전과 원비가 낮고 소규모인 유치원 배려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균등지원(원당 500만원)과 차등지원(납입금대별 학급당 5만~14만원)을 병행한다.

인상률 상한은 2.4%였으며, 전체 사업유치원 165곳 가운데 88.6%인 138곳이 동결지원금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납입금 안정화 정책을 위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는 물론 원아모집 정지, 학급 감축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주, 영화촬영지로 '각광'

종합촬영소 1분기 사용예약 조기 마감

전주영 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되는 영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전주가 대한민국 영화촬영 1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전주영 화종합촬영소의 1분기 사용예약이 국내 영화제작사의 잇따른 러브콜로 인해 조기 마감됐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영 화종합촬영소에서는 지난해 설경구·김남길·설현 주연의 영화 '살인의 기억' (감독 원신연) 촬영을 시작으로, 현재 영화 '그대 이름은 정미'가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영화 '브로커' 등이 전주영 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다수의 작품들이 전주영 화종합촬영소 사용대여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영 화종합촬영소는 지난해 총 689일의 가동일수로 국내 최고수준의 운영률을 보이며 국내 대표적인 영화촬영스튜디오로서 입지를 재확인했다.

전주시 신성장사업본부 관계자는 "전주영 화종합촬영소에서는 다른 촬영소보다 많은 영화촬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주영상위원회는 앞으로도 전주영 화종합촬영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영화영상도시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4월 개관한 전주영 화종합촬영소는 부지 5만 7701㎡, 건물 4186㎡의 규모로, 실내스튜디오(J1)와 다목적 촬영 스튜디오(J2), 영화소품보관창고(J3), 야외세트장, 야외촬영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김영재 기자

학교 안전사고 보고 학생안전관리지원단으로

소방서, 경찰서 등
교육지원청
학생안전관리지원단

주안 학생안전관리지원단
☎ 2393-119
☎ jbe119@jedu.kr

야안 학생안전관리지원단
☎ 2393-119
☎ jbe119@jedu.kr
F. 200-9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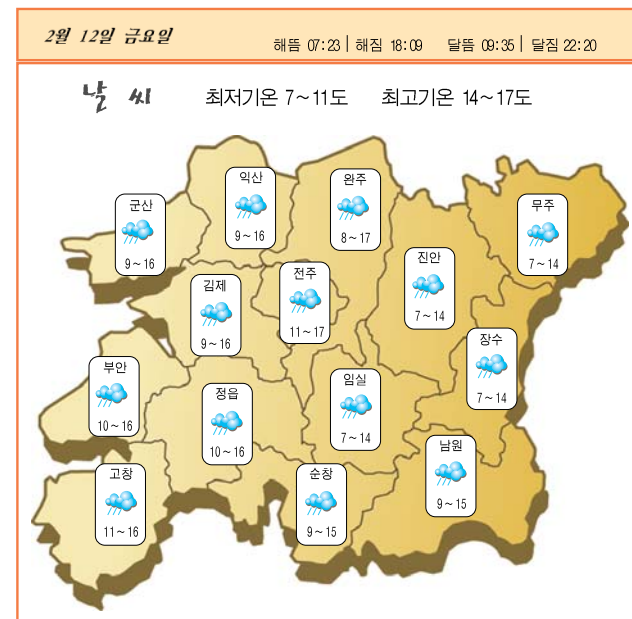
【보고대상】 재난 및 학생 안전사고, 인, 학교폭력(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대상기관】 유치원 및 각종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안전사고 보고 체계를 학생안전관리지원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력인정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학생안전사고나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안전관리단 전용화선(2393-119)으로 보고하고, 대표 메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안전사고 보고 기준도 따로 정했다. ▲교육활동 중 예외 3명 이상 사고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교육활동 외 사고 ▲법정 제1군 감염병으로 인한 역학조사, ▲교내 감염병으로 인한 긴급 방역조치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공휴일 발생 안전사고는 당직실로, 학교폭력 발생 사고는 종전처럼 인성전강과에 보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학습 부교재, 학교운영위서 심의

도교육청, 리베이트 근절 나서

도내에서 학습 부교재 관련 리베이트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새 학기를 앞두고 학습 부교재 채택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공문을 보내 정규 교과과정에서는 학습 부교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방과 후 교육활동시간에 활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부교재 채택으로 학부모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시민 소장 한옥마을 자료 수집

전주역사박물관, 이달 말까지

전주역사박물관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옥마을 자료를 오는 2월 말까지 수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한옥마을에 조성될 역사관에 전시해 전주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옥마을 역사관에는 한옥마을의 변천과 그 속에 녹아 있는 삶의 이야기, 민관이 함께한 보존과 명소화 과정, 한옥마을의 미래 비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주역사박물관은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한옥마을의 일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익산 미륵사지·왕궁리유적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도시 '익산' 31만 익산시민과 함께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로 그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FOODPOLIS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